



미국 뉴욕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탁영아가 스타인 웨이 레이블에서 베토벤 음반을 발매했다. 베토벤 소나타 Op.10 No.2, Op.31 No.3, Op.57 No.23, 론도 Op.51가 수록되어 있다. 최근 베토벤 협주곡 연주를 비롯해 독주회 등 뉴욕 시티 스타인웨이홀 주최로 베토벤 작품들 연주 무대를 갖고 있는 그녀와 이메일 인터뷰를 나누었다. 줄리아드 음악원과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학사와 석사를, 피바디 음대에서 박사를 취득한 피아니스트 탁영아는 피바디 음대 예비학교와 사우스이스턴 대학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뉴욕 주립대 포츠담의 크레인 음대 피아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뉴욕 링컨센터·카네기홀·필라델피아 키밀센터·워싱턴 카네기센터 등지에서 연주한 바 있다.



들을 마주하며 내 자신과 음악, 나아가 세상에 대해 조금씩 배우며 받은 영감, 아름다움, 깨달음, 그리고 그의 음악 안에 담긴 각 곡의 철학과 의도를 표현해보고 싶었다. 그런 과정에서 베토벤이란 작곡가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한 것만으로도 아주 특별한 작업이었다. 이 작업을 거치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게 된 시간이었다.

베토벤의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베토벤이란 작곡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가 음악 안에서 제시하고 의도하는 것을 찾고 풀어나가며 또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어렵고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 이번 연주에서도 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한다기 보다 베토벤의 음악 그 자체를 온전히 존경하고 손끝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베토벤은 추구하고자 하는 음악적 의도가 곡마다 확실한데, 그것을 계속 찾아내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연주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말 견고하게 짜여진 구조·하모니·프레이징 안에서 작곡가가 이뤄내는 아름다운 밸런스는 거의 매번 경이로울 정도다. 동시에 깊이 들어 갈수록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그 음악에 대한 다각적인 공부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더불어 그의 곡들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악적 용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베토벤의 깊이있고 영적인 음악 앞에서, 음악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이런 음악을 접하고 연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베토벤 음악은 그렇게 숭고하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음악이라 믿는다.

앞으로의 연주 계획을 알려 달라.

내년 8월에 독주회가 있고, 베토벤의 곡들이 메인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글 국지연 기자